



한국법제연구원, 2020 K-LAW 포럼 개최



☎ 백영주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연구원
✉ youngju@klri.re.kr

한국법제연구원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2020년 K-LAW 포럼을 개최하였다. 2020년 도 K-LAW 포럼은 COVID-19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세계에서 바라본 한국법(Views from the World)”을 주제로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3개 세션은 지역별로 각각 미국 동부, 유럽, 미국 서부 및 하와이 세션으로 구성되어 각 지역 한국법 연구자들의 발제와 국내 연구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법제연구원은 K-LAW 포럼을 통해 해외 한국법 학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교류 저변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올해 K-LAW 포럼은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나 기존보다 더 다양한 지역의 연구자들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제1세션은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기획조정실장의 주제로 미국 동부 지역 한국법 연구자인 콜롬비아대학 로스쿨 노정호 한국법센터장과 미주리대학 이일형 교수가 각각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검토,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고, 단국대학교 장철준 교수와 인하대학교 로스쿨 정찬모 교수가 각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노정호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과제와 평화협정, 비핵화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장철준 교수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이전보다 더욱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한국에서 바라보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일형 교수는 인터넷 도메인과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를 비롯하여 한국이 당사자가 된 분쟁사례를 소개하였다. 정찬모 교수는 한국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IDRC), 아시아도메인분쟁해결센터(ADN-DRC)의 소개 및 분쟁 해결 사례 소개를 통해 토론 의견을 나누었다.



제2세션에서는 유럽 지역의 한국법 연구자들의 발제와 국내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다. 베니스 카포스카리대학 안종철 교수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한국과 이탈리아의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비교 연구 내용을 소개하였고, 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하네스 모슬러 교수는 한국의 공직선거법과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김충천 연구위원과 부산대학교 로스쿨 김재선 교수의 토론을 비롯하여 연구자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튿날 진행된 제3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최지연 대외협력홍보팀장의 주제로 미국 서부 및 하와이 지역의 한국법 연구자들의 발제와 국내 연구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장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 실종 실무그룹 의장인 백태웅 교수는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이행 입법에 대한 논의와 의견을 제시하였고, 오레곤대학교 염규호 교수는 한국 정보통

신법의 사례연구의 일환으로 한국법의 세계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내 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오승진 교수와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가 참여하여 각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주고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의 K-Law 포럼은 한국법 연구 활성화 및 수요 진작을 목표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다. K-Law 포럼은 그동안 미국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교 로스쿨, UC버클리로스쿨과 하와이로스쿨 등지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폭넓은 한국법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맺으며 한국의 최신 법제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해왔다.

2020년도 K-LAW 포럼은 그간 중점적으로 교류해오던 미주지역 한국법 연구자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그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유럽 등에서도 한국법 연구자를 발굴해 해외 각지의 한국법 학자들이 상호 간 연구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를 모색하였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향후에도 K-Law 포럼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으로 한국법 연구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국제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해외 법과대학 교육과정 내 한국법 강좌개설을 추진하고, 해외 법학자, 공무원, 입법실무가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시행하는 등 한국법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